

어린이 책꽂이

▲아기 흰 돌고래야, 힘을 내!=자연과 환경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는 생태동화

온갖 위험을 극복하고 삶을 개척해 나가는 아기 흰돌고래의 이야기가 흥미롭게 펼쳐진다.

〈효리원·9천원〉

▲넌 누구니?=이별, 어둠, 낯선 소리, 괴물, 유령 등 실제든 상상이든 아이들의 마음 속에는 저마다 두려운 존재가 자리잡고 있다.

그림자를 무서워 하는 주인공 소년이 그림자와 맞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된다는 줄거리이다.

〈솔출판사·8천500원〉

▲우글와글 미생물을 찾아봐=주인공 우성이와 미생물 젬이 펼치는 미생물들의 세상 이야기.

미생물에 대한 정보가 사진, 그림과 함께 실려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대교출판·9천원〉

▲아침 해를 구한 용감한 수탉=절제 명의 순간 용기와 재치로 목숨을 구한 수탉과 아침이 오지 않게 하려는 어수룩한 도둑의 한바탕 소동을 그렸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용기를 가지고 맞서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진리를 일깨워준다.

〈시공주니어·7천500원〉

▲다른 엄마 데려 올래요!=주인공 소녀는 가게 놀이를 하고 싶지만 엄마가 반대하자 다른 엄마를 데려오겠다고 소리친다.

누구나 한번쯤 꿈꾸었을 법하지만 어른들에게는 불편한 이야기를 재치 있게 표현하고 있다.

〈두레이아들·8천900원〉

문명의 발달은 인간을 꼭 이롭게 했을까

문명 패러독스 송상호 지음

문명은 과연 사람과 세상을 이롭게 할까? 가령 광주에서 서울까지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는 사람은 있다고 하자. 그는 차가 발명되기 이전의 사람보다는 문명 복적지에 빨리 도착할 것이다. 하지만 그가 차가 없었던 시기의 사람보다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가 시간을 단축해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일을 해야했고, 세금을 내며 자동차 정기검사까지 받아야 하는 등 지불해야 하는 가치는 더욱 늘었기 때문이다. 문명의 이기인 자동차가 사람을 좀 더 빠르게 목적지까



지 안내를 하지만 남는 시간을 더욱 여유롭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지는 못한 셈이다.

막노동, 고물장사,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독학으로 지식을 쌓은 저자 송상호의 '문명 패러독스'는 모든 문명이 간직한 다양한 '역설'의 얼굴을 보여주는 책이다.

저자는 문명에 대해 의심을 하는 행위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소개한다. 우리

가 속해 있는 민족과 사회의 이념과 구조를 부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 2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의 지식인들과 시민들이 히틀러가 제시한 길에 동의하며, 열광적인 지지를 넘어 숭배를 했던 이유도 바로 문명에 대한 의심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저자는 이같은 문명 비판을 방대한 양의 책과 영화, 소설, 그림 역사 등을 인용해 풀어냈다.

논리를 전개하기 보다는 재미 난 이야기로 풀어냈고, 인간의 문명이 만들어 내 술한 유적과 유물 등이 풍부한 자료 사진에 담겨 있어 독자들의 책 읽기를 돋운다.

〈인물과 사상사·1만3천원〉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찰리 챔플린의 '모던 타임스'는 거대한 대량생산 체제의 부속품으로 전락한 노동자의 삶을 풍자한 영화다. '모던타임스' 중 현장면.

추락하는 한국경제의 진단서

… 한국경제를 말하다 지승호 지음

전문 인터뷰어 지승호씨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김수행 교수를 만나 끝없는 한국 경제의 추락을 진단했다.

'김수행, 자본론으로 한국경제를 말하다'는 신자 유시대 한국경제의 위기를 진단하고, 전망과 대안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와 경제의 문제점을 낱낱이 분석한 책이다.

위기의 순간에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다시 꺼내봐야 하는지, '자본론'을 어떻게 한국경제에 적용시켜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모색했다. 특수증만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했던 MB노믹스의 끝없는 추락, 개발과 독재의 공생관계를 끊고 새로운 부를 창출하지 못하는 금융 자본의 혐구를 폭로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김 교수는 '복지'를 바탕으로 실물경제에서 대안을 찾아 미국을 넘어서 한국경제의 새로운 길 찾기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대의 창·1만4천5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난 아버지를 미워 했는데…

차마 뜯다한 … 마이클 레비 지음

'차마 뜯다한 이야기'는 자신의 인생을 방해하는데 남다른 재능(?)이 있었던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 아버지와 화해하는 과정을 그린 프랑스 작가 마이클 레비의 가족 소설.

결혼을 며칠 앞둔 줄리아이는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듣는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아버지는 늘 자신의 일상을 방해하는 존재였다. 줄리아이는 아버지의 사망 소식에 슬퍼하기보다는 "이번에도 내 결혼식을 방해하려는 거군"이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장례식 후 줄리아에게 아버지와 똑같이 생긴 밀립인형이 배달돼 오고, 인형의 리모컨을 누르자 인형은 놀랍게도 아버지로 변해버린다. 아버지로 변한 밀립인형을 통해 줄리아가 아버지를 이해하는 과정을 따뜻하게 그렸다.

작가 마이클 레비는 '로지택 프랑스' 등 유명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CEO이자 아들과 가족을 위해 소설 쓰는 작가이다.

〈열림원·1만5천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겨울방학을 맞아 티의 추종을 불허하는 프로교수진 총출강!! 합격의 확신을 드립니다 =

7·9 금 공무원 특강

40 주부특별반 행 교 세 관 감 법 검 마 철 출 교 보 보 복 전 소 기 단 10 기 능 직 품
• 주·아간 설립리 강의증 정 육 무 세 사 원 칠 약 공 관 정 전 호 지 산 방 술 과 • 일반상식, 한국사, 2과목
'09년 시험안내

• 시험일자 : 8급 국/제 4월 11일, 지방직 5월 2일, 7급 7월 25일 시행
• 채용인원 : 국가 3,267명, 지방직 1,424명, 고교 903, 경기 685, 전남 309, 광주 119, 전북 206명

7·9
국
무
원
특
강
개
강
내
년
소
방
직
기
도
교
수
진
전
원
서
울
에서
출
강
광
주
동
부
서
부
(중
교
후
교
원)

222-4560
www.mdgosi.co.kr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SCU한의대
www.scukorea.com 문의전화 010-6834-6253
취업 고민해결! 아메리카대륙에서 성공을!
입학상담/설명회 매일 오후 3시, 4시
캐나다, 미국
한의사가 될수있습니다!

2009년 1월 2일(주, 아) 국비지원 전국 최대 합격자 배출!!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50명의 출제 위원급 교수진과 45개 학원 네트워크를 통해 합격시키는 강의의 전수를 보여드립니다.

개강 1월 2일(주, 아) 주부반, 성인반 국비지원 재직자반 국비지원 고용보험재직자 교육부 학급 선착순 60명

• 전국 최대 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 45개 학원체인) • 회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잘하는 학원 1위 • 선배합격자분들이 추천한 1등 학원 •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학원 1위

서구점 ☎ 361-8111
• 농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건물 2층
북구점 ☎ 268-8111
• 학장이전, 오치동 북부경찰서 건너편 새롬빌딩 4층

국비지원 고용보험재직자 교육부 학급 선착순 60명

• 44년 전통 • 광주 지역 최다 합격자 배출 !!

• 본원 출신 전국 수석 (송은영님 평균 96.7점)

주택관리사 "2009년 9월 시험 예상"
첫 진도 개강 1월 2일

광주고시학원

직장인을 위한 고용보험 학급과정

본원 ☎ 227-8003 전남여고 맞은편 3층

국비지원 고용보험 학급과정

첨단점 ☎ 971-0002 광주은행 첨단점 4층

작가와 함께하는 책 읽기

'아기동 별똥' '참동무 깨동시'

어린이들에게 감성의 폭을 넓히고 상상의 키를 둘우어 주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시를 즐겨 읽고 감상하며 실제로 써 봐 한다는 것은 대체로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 필요한 원재료인 시집 고르기는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다.

좋은 시의 요건 몇 가지-동심을 바탕에 두고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깨끗한 우리말로 써어진 시, 무심코 지나쳐 버렸거나 미처 깨닫지 못했던 대상(사물과 현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나 발견을 담고 있는 시, 창조적 상상력을 북돋워 주면서도 현실을 떠나지 않은 시, 어린이를 주목으로 하면서 청소년·성인 들도 즐겨 읽을 수 있는 시-를 줄줄 펴고 있다 해도, 짐작 수많은 동시집 앞에 서면 또다시 막연해져서 선뜻 집어들 엄두를 내기 어렵다고 한다.

엄두에 두어야 할 것은 동시 선집 몇 권만 골라 읽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선집의 시들을 읽는 동안 유달리 마음에 와닿으면서도 앞에 적은 좋은 동시의 요건에 합치되는 시인의 작품만 실린 시집도 찾아 읽어야 한다.

우리 문단의 원로인 신경림 시인은, 윌리엄 워즈워드의 시 '무지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동시

개'에서 '어린이는 어린이의 아버지'라는 구절을 빌려, '동시는 시의 아버지'라고 한 바 있다. 이런 뜻에서 그동안 출판된 동시 선집 가운데 특별히 권하고 싶은 책 두 권을 추천한다.

'아기동 별똥'(청계구리)과 '참동무 깨동시'.

마냥 어린이들의 것으로만 알던 동시가, 어른과 청소년이 주목하는 한 일간지에 연재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어찌먼 동심 성장판이 달려 버렸기 십상인 청소년은 물론 어른들까지도, 새로운 동시 한 편을 만나기 위해 다음 날 아침 신문을 기다릴 만큼 뜨거운 반응을 보인 것이다. 아침마다 배달된 책으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 동시를 가슴으로 읽은 독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박수를 보냈다.

"연일 신문을 장식하는 어지러운 사건들 틈에 천진난만한 동시에 있다. 세상 근심 걱정을 다 잊게 하는, 방글방글 웃는 아기 같은 동시가 있다."

"읽으면 그냥 마음에 이르며, 신선하고 가공되지 않은 들풀 같은 동시에 있어 더없이 반갑다. 일상에 친한 어른들을, 잊고 살았던 동심의 세계로 인도하며 하루를 상쾌하고 행복한 느낌으로 시작하게 한다."

"동시에 읽힌 배경 설명을 읽으며, 그 천진난만함 속에 묻어 있는 오묘함에 다시 한 번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이때 연재되었던 우리 동시 문학 100년을 빛낸 윤동주·정지용·박목월·권정생 등 세상을 떠난 시인에서부터 박경용·신현득·이준관·손동연 등 현역 시인에 이르기까지 주목 같은 작품 107편과 그에 따른 해설이 이 두 권의 시집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또한 '아기동 별똥'에 실려 있는 김용희 선생의 동시 이야기 '엄마랑 함께 즐기는 동시 놀이'는, 온 가족이 동시에 가지고 놀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대화법과 함께 살아 있는 문학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해 주고 있다.

